

계명대학교 실�크로드 중앙아시아연구원  
2022 실�크로드 문명아카데미 제2기

제10강  
11월 22일(화)  
오후 7시-9시

# 실�크로드 제국 통치자들의 종교적 관용



강사: **이인경** 교수

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, 동 대학원 신학과에서 석사·박사학위를 받았다. 현재 계명대학교 Tabula Rasa College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. 종교 문해력, 상호종교교육, 실�크로드 종교 등의 주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.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『페르시아에서 만난 실�크로드 영웅들』(공저), 『실�크로드에서 만난 신 이야기』(공저), 『실�크로드, 중국과 한국의 접점을 찾아서』(공저), 『기독교와 대화하기』(공저), 『생명감수성 인큐베이팅』(공저), 「다종교 사회에서 기독교(개신교) 대학 기독교교양 교과목의 상호종교교육 가능성」 등이 있다.

실�크로드 상의 제국 통치자들 가운데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(Cyrus the Great, 559~530 BC 재위), 로마제국의 콘스탄티누스(Constantinus I, 306~337 재위), 당 제국의 태종(唐太宗, 626~649 재위), 오스만제국의 메흐메드 2세(Mehmed II, 1444~1446, 1451~1481 재위)는 종교적 관용 정책을 시행한 대표적 인물로 평가된다. 그러나 그 관용을 인권과 관련된 현대적 의미의 관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. 제국을 유지하고 확장하고자 할 때, 강압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박해는 그 대가가 너무 크며 인종적·종교적 균질화는 생산성이 낮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은 아닐까? 이 강의에서는 바빌로니아의 마르둑과 유대의 야웨를 포용한 키루스,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고 기독교 공의회를 소집한 콘스탄티누스, 외래종교에 개방적이었던 당 태종, 기존 정교회 유지 및 조직을 재건한 메흐메드 2세의 종교적 관용이 어떤 배경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정치적 함의와 특징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.